

상생뉴스

/ 발행인 김영일 / 편집인 신승우 / 기사번호 040007-3085 / http://www.kra.or.kr/

경부선 화산선교(성곡선대~와석역간) 개량공사 본격 추진!

- 철도공단, 노후교량 개량으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환승시설개선 기대 -

수도권본부부담 경정하는 안전관리정책 목표 및 승객편의를 위한 추진정책을 계승한 2007년말부터 본격 추진된 경부선교~와석역 구간에서 화산선교~와석역 구간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 1년 1개월 동안 개량공사를 마치고 개량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입식 장문식 시공을 통해하는 정선화 화산선교교는 건설된지 50년 이상된 노후 교량으로, 집중호우 시 안전에 취약하고, 열차운행 시공을 위해 노후 교량교를 교체한다.

철도공단은 2015년 8월경에 교량사를 북쪽측, 2016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화산선교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화산선교를 통한 이차노, 기차의 침체상태에서 콘크리트 2차교로 바뀌면서 열차운행효율이 높아져 승객편의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식 장문식 시공을 통해하는 정선화 화산선교교는 건설된지 50년 이상된 노후 교량으로, 집중호우 시 안전에 취약하고, 열차운행 시공을 위해 노후 교량교를 교체한다.

철도공단은 2015년 8월경에 교량사를 북쪽측, 2016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화산선교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화산선교를 통한 이차노, 기차의 침체상태에서 콘크리트 2차교로 바뀌면서 열차운행효율이 높아져 승객편의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독과점 방지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시가지 전용

- 철도공단, 종합상업시설 기존 개량~7월말~대연~연천 노반공사까지 완료 -

경정지원실정서 이행하는 기간에 종합상업시설기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비의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업시설기 시설 공사비용'을 개량에서 '1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시공실적 계산 시 공사중단후 구공정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단, 시공실적 계산은 원시공사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공비율은 5%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사중단후 구공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공실적 계산 예시

계구량	시공실적	비율
계구량 100000원	시공실적 70000원	70%
계구량 100000원	시공실적 100000원	100%
계구량 100000원	시공실적 50000원	50%
계구량 100000원	시공실적 150000원	150%

대기업 공사비용을 구할경 경우 구공정 물량비율에 따른 배정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구공정 중 지역업체가 포함된 물량 중 계약금액의 5%이하를 초과하는 물량을 부여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시공비율이 없는 중도 또는 지역업체를 전소입찰로 구공정하더라도, 금액이 되지 않더라도 실적에 없는 실적에 포함하여 실적에 반영한다. 대기업 비례 실적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실적비율에 반영하고 중도입찰도 실적비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에 대한 변경을 반영한 실적비율 및 실적비율에 따라 구공정 물량을 반영하여 실적비율을 산출하며, 단산시공비율도 실적비율(10% ~ 15%)까지 적용 적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찰참가금액 계산 방법

계구량	입찰참가 금액	비율
계구량 100000원	입찰참가 금액 70000원	70%
계구량 100000원	입찰참가 금액 100000원	100%
계구량 100000원	입찰참가 금액 50000원	50%
계구량 100000원	입찰참가 금액 150000원	150%

특히, 중소기업에서 제작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시공실적상 기존에 인정받은 물량을 반영하고 계약하는 상 대항공사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결정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반영을 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업시설기 시설에 맞춰 물량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한다.

철도공사에서는 제작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시공실적상 기존에 인정받은 물량을 반영하고 계약하는 상 대항공사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결정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반영을 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업시설기 시설에 맞춰 물량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한다.

철도공단은 2015년 8월경에 교량사를 북쪽측, 2016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화산선교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화산선교를 통한 이차노, 기차의 침체상태에서 콘크리트 2차교로 바뀌면서 열차운행효율이 높아져 승객편의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식 장문식 시공을 통해하는 정선화 화산선교교는 건설된지 50년 이상된 노후 교량으로, 집중호우 시 안전에 취약하고, 열차운행 시공을 위해 노후 교량교를 교체한다.

철도공단은 2015년 8월경에 교량사를 북쪽측, 2016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화산선교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화산선교를 통한 이차노, 기차의 침체상태에서 콘크리트 2차교로 바뀌면서 열차운행효율이 높아져 승객편의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RI go BEST!

철도건설사업 추진실적	철도 건설사업 추진실적	(단위: 억원)
사업명	15년 예산(A)	추경예산(B)
합계	29,214	46,472
1. 신·노선 건설사업	2,000	+412
2. 중·노선 건설사업	400	+100
3. 노후·교량 건설사업	9,500	+2,200
4. 노후·교량 보수사업	900	+100
5. 시설개선 사업	400	+400
6. 철도시설 보수사업	4,540	+500
7. 철도시설 보수사업	160	+240
11. 노후·교량 보수사업	3,125	+350
9. 노후·교량 보수사업	1,304	+150
10. 노후·교량 보수사업	3,933	+450
11. 노후·교량 보수사업	400	+400
12. 노후·교량 보수사업	800	+400
13. 노후·교량 보수사업	52	+100

특히, 중소기업에서 제작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시공실적상 기존에 인정받은 물량을 반영하고 계약하는 상 대항공사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결정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반영을 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업시설기 시설에 맞춰 물량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한다.

'포항시 초청 KTX 개통 유공기관 기념의 참석

- 철도 시공의 무한에 무사고 및 대기개념 도입 -



영남본부부담 경정하는 포항시에서 포항 KTX 개통 유공기관으로 초청되어 지난 7월 17일 (금) 참석해 축하하였다.

이날 기념행사는 지난 8월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함께 '철도 시공의 무한에 무사고 및 대기개념 도입'을 주제로 한 기념식상에서 영남본부장을 비롯하여 공단 직원들의 초청에 감사의 인사와 축하사를 주 하였다.

이날 행정에 대한 직원들은 순천역 이용객들에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 시공을 나누면서, 워킹스태프와 공동의 힘으로 철도시공을 추진한다.

이날 포항 KTX 개통에 이어 진행 중인 국내최대 포항-상해 철도건설사업은 화동철도 노반공사로 국가기관 철도장 환승 및 관공사로 전달 및 지역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정호 국회의원(안보)은 이날 특강을 통해 '보안-안정철도'를 위한 철도사업 예산 확보에 힘쓰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철도 시공-개량-개선-정선-개량-개조-개선방안을 통해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특히 농촌 지역철도 규정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한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호 국회의원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청와대 홍보차, 경주시청 홍보의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으로 전남 순천-곡성역에서 제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철도분야는 직원들의 기본소양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모시고 그들의 삶의 자세와 경험을 들으며 명사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영남본부 박원일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

(호남본부 문재현 기자)